
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0주차. 4·19 혁명
2강. 민중혁명 및 시민혁명



학습 내용

1. 4·19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?
2. 성격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?



학습 목표

1. 4·19 혁명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2. 4·19 혁명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2강 민중혁명 및 시민혁명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민중혁명, 대리혁명, 시민혁명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?
- 나는 지금까지 4·19 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?



01 들어가기 전에

☑ 4·19의 성격 규정에서 핵심적인 두 쟁점은;

- 1 4·19는 혁명인가? 혁명이면 어떤 종류의 혁명인가?
- 2 원인과 과정, 결과가 주로 정치적인 것인가, 사회경제적인 것인가?



☑ 이 두 쟁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분류하여,

민중혁명

정치혁명 또는
시민혁명

정치적 봉기



1] 민중혁명

인민대중

- 민중
- 역사상 각각의 시대의 계급사회에 있어 지배되고, 억압받으며, 착취되면서, 생산에 종사하고,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문화의 창조를 떠받치는 사람들
- 즉 역사의 참된 창조자들
- 특히 인민대중의 역사적 의의는 사회혁명의 시기에 명료해짐
- 혁명이 수행되고 새로운 사회로 진보되어 가는 것은 이 대중의 힘
- 사회를 추진시키는 인민대중의 사회적·정치적 세력의 내용과 범위는, 각각의 역사의 단계에 따라 다름



1] 민중혁명

☑ 4·19에 대한 성격 규정 중 가장 급진적인 관점

- ➡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진적인 민중·민주화 운동권을 중심으로 제시
- ➡ 이 관점은 1980년대의 급진적 사회과학자들의 주장
- ➡ 이 논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한 급진적 주장



1] 민중혁명

경제적 사회구성체 (Socio-economic formation)

- 사회 경제구성체
- 마르크스주의에서 확립된 개념
- 물질적 생산을 근간으로 하여 역사상 빈번하게 교체되어 온 각 사회의 형태
- 사회는 일정한 사회적 생산력에 기초하여 생산관계를 맺음
-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가 생김
- 또한 정치기구·제도·이데올로기 등의 상부구조 형성
- 이러한 것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인 사회결합체 형성
- 역사상 이러한 유기적 사회결합체, 즉 경제적 사회구성체는 5개의 형태
- 원시공산제, 노예제, 봉건제, 자본주의, 공산주의



1] 민중혁명

☑ 민중민주변혁론의 입장에서 4·19 성격 규정

- ➡ 이론적 근거는 경제적 사회구성체론
- ➡ 실천적 목표는 한국사회의 민중 민주주의적 변혁
- ➡ 4·19 당시 한국사회의 성격은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단계, 대외 의존적 매판적 관료자본주의로 규정



1] 민중혁명

매판자본 (comprador capital)

- 일반적으로 식민지나 후진국 등에서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자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자본

관료자본 (bureaucratic capital)

- 관료들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축적한 자본.



1] 민중혁명

☑ 민중민주 변혁의 과제는,

➡ 외세 타도

➡ 민중 소외를 극복할 민족적·민중적·민주적 변혁, 즉 민중혁명의 과제



1] 민중혁명

☑ 4·19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 실현을 위한 민중혁명

- ➡ 당시의 사회 구조로 볼 때, 민중세력들은 변혁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
- ➡ 때문에 학생이 대리로 나서게 되었음
- ➡ ‘대리 혁명’의 한계
- ➡ 학생들의 한계, 장면 정권의 비혁명성, 군부의 반동으로 혁명의 과제 미완수
- ➡ 아직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‘미완의 혁명’

☑ 민중혁명론의 특징은;

- ➡ 4·19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국제적 연관
- ➡ 역사적 과제의 지속성 강조



1] 민중혁명

✓ 민중혁명론에 대한 비판

1 4·19에 대한 정치적·이념적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경향

- 왜냐하면 4·19를 변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
- 이론에 대한 신봉은 사실 분석을 제대로 못하게 할 수 있고,
- 사실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



1] 민중혁명

☑ 민중혁명론에 대한 비판

2 민중혁명론은 4·19의 필연성 강조

- 당시 한국사회의 예측적·매판관료자본주의적 성격
- 이로 인한 민중의 소외 때문
-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행동의 필연적 관계 규명의 한계
- 4·19는 경제적 토대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미흡
- 민중의 소외, 피폐상과 민족민주 변혁의 과제만 강조



1] 민중혁명

☑ 민중혁명론에 대한 비판

3 사회경제적 ‘배경’을 혁명의 원인으로 주장

- 배경과 원인은 다름
- 배경이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
 - : 그 배경과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과의 상관관계 규명
- 민중혁명론은 사건, 행위자들의 실제 주장 및 행동을 ‘현상적’인 것으로 서술
- 이보다는 사태의 (구조적) ‘본질’ 규명 주장
- 그 구조적 본질도 목적론의 경향성
- 사회구조적 조건이 3·15 부정선거라는 정치적 사건과 시위 주동자들의 정치적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규명해야 함



1] 민중혁명

☑ 민중혁명론에 대한 비판

4 논리적 자기모순 및 비일관성

- 4·19가 민중혁명임을 주장하면서도, 이를 부정함
- 민중혁명론자들은 4·19를 주도한 학생들의 한계로,
 - : 낭만성
 - : 사회의 총체적 변혁의 요청 외면
 - : 반민중성



1] 민중혁명

◆ 민중혁명론자들의 반론

- ➡ 4·19를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보는 것은 소시민적 운동관임
- ➡ 4월 혁명을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순수한 학생 의거로 보는 관점 거부
- ➡ 근대화 과정의 한 갈등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거부
- ➡ 이런 관점으로는 장기적인 민족민주 변혁의 전망에서 전개된 4월 혁명을 이해할 수 없음



2] 대리 혁명, 미완의 혁명

✓ 대리 혁명, 미완의 혁명

- ➔ 민중혁명론자들의 대안적 이름 짓기
- ➔ 4·19혁명을 민중이 아닌 학생이 주도했기 때문에, 대리혁명
- ➔ 4·19혁명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, 미완의 혁명

✓ 대리혁명이라고 성격 규정하기 위해서는;

- 1 민중의 혁명적 욕구가 존재했는가?
- 2 있었다면 그 욕구는 무엇이었는가?
- 3 학생이 왜, 어떻게 민중의 욕구를 대리했는가?



2] 대리 혁명, 미완의 혁명

☑ 관련 논의

- ➡ 대리혁명론자들은 혁명의 역사적·사회경제·구조적 필연성 강조
- ➡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
- ➡ 더욱이 학생이 민중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

◇ 반론

- ➡ 학생, 도시 주변세력과 일반시민은 정치·사회적 불만에 따라 행동
- ➡ 이는 ‘민중의 이해’를 대변한 것은 아님
- ➡ 대리혁명 개념은 민중혁명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용어
- ➡ 경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용어



2] 대리 혁명, 미완의 혁명

☑ '미완의 혁명' 용어의 함의

- ➡ 역사적 당위, 과제 및 혁명의 지속성 강조
- ➡ 4·19의 혁명적 이상은 고매
- ➡ 혁명세력의 한계, 반동세력으로 혁명의 단기적 실패
- ➡ 그럼에도 그 과제는 여전히 지속

◇ 반론

- ➡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수사
- ➡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목적론적 성격 비판



3] 시민혁명

☑ 구질서 타파,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 건설

☑ 혁명적 사건

☑ 민중혁명론의 목적론 극복



3] 시민혁명

☑ 혁명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분석

- ➡ 4·19의 결정적인 요인을 권력 블록과 민중 사이의 갈등
- ➡ 4·19의 정치 변혁적 성격 강조
- ➡ 대리혁명론 비판
- ➡ 학생에 의한 민중 대리혁명이 아닌, 학생에 의해 선도된 전형적인 민중혁명
- ➡ 반독재 민주화 운동 및 자주화 통일운동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 운동



3] 시민혁명

◆ 반론

- ➡ 학생이 민중의 일부라면 민중혁명보다는 학생혁명이 더 엄밀한 용어
- ➡ 시민혁명론자의 민중혁명 개념과 민중혁명론자의 그 개념 사이의 개념적 차별성 모호



학습 정리

- ? 4월 19일 전후로 일어난 사건의 성격 규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.
- ? 그 대표적인 논의가 민중혁명론, 대리혁명론, 시민혁명론이며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.

